



- 다만, 현재 오픈뱅킹은 은행과 핀테크기업만 참가하고 있고, 입금 가능계좌도 요구불계좌에 한정되어 있어,
  - 더욱 많은 국민이 한층 편리하게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.
-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발표 ('20.10.21, 제3차 디지털금융협의회)하여 오픈뱅킹 참가기관 확대 및 입금가능계좌 추가방안 등을 추진해왔습니다.

## 2 참가기관 확대 및 입금가능계좌 확대 주요내용

- ① (추가참가기관) '20.12.22일부터 5개 상호금융(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), 우체국, 13개 증권사\*에서 오픈뱅킹 대고객 서비스를 개시합니다.

\* 교보증권, 미래에셋대우, 삼성증권, 신한금융투자, 이베스트투자증권, 키움증권, 하이투자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투자증권, KB증권, NH투자증권, 메리츠증권, 대신증권

- 고객들은 이제 본인이 사용하는 앱에서 이들 금융회사들의 계좌도 한꺼번에 조회하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.

※ 예시 : ① 증권사 앱에서 오픈뱅킹 참가회사들의 모든 계좌를 조회·이체 가능  
 ② OO은행 앱에서 상호금융, 우체국, 13개 증권사 계좌도 추가적으로 조회·이체 가능

- 저축은행과 4개 증권사\*(유진투자증권, 현대차증권, SK증권, DB금융투자)도 전산개발이 완료되는대로 내년 상반기 중 대고객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실시합니다.

\* 다만, 4개 증권사의 계좌 조회·이체는 다른 금융 앱을 통해 12.22일부터 이용이 가능

- 카드사의 경우 금융결제원 총회의결을 통한 특별참가절차를 거쳐 '21년 상반기 중 추가 참여할 예정입니다.

- ② (입금가능계좌) 추가참가기관 확대 일정에 맞춰 입금가능계좌도 현재 요구불예금계좌 외 정기 예·적금계좌까지 확대됩니다.

### ※ 오픈뱅킹 이용 방법 안내

- 이용을 원하는 앱에서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타행 계좌 등록 및 이동의 후 조회·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12월 22일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어카운트인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계좌번호 직접입력 없이도 보유계좌 자동조회 후 손쉬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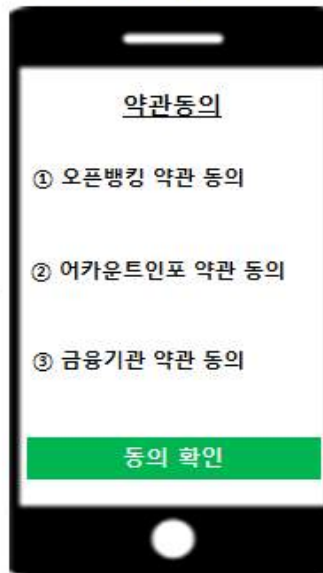
※ '21.上 중 어카운트인포 서비스제공 채널을 카드사 및 핀테크기업까지 확대예정

### [ 참고 : 제2금융권 오픈뱅킹 사용예시]

1. 개별 앱 메인화면에서  
오픈뱅킹 이용하기 선택



2. 오픈뱅킹, 어카운트인포,  
해당 금융기관 약관 동의



3. 연결할 금융기관 및 계좌  
선택 후 연결 완료



※ 실제 개별 앱의 인터페이스는 각 회사별로 상이

## 3 조회수수료 하향 조정

□ '21.1.1.부터는 조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기관들이 지불하는 조회 수수료가 1β 수준으로 인하됩니다.

- 참가기관 확대에 따른 조회 건수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, 이용기관들의 수수료 부담 등을 고려하여 하향조정\*되었습니다.

\* 금융결제원 이사회 의결('20.12.10)

< 오픈뱅킹 조회수수료 조정내용 >

업 무		구 분	처리대행비용				경감기준
			현행		조정후		
			기본비용	경감비용	기본비용	경감비용	
조 회	잔액조회	10원	5원	3원	2원	월 거래건수 10만건 이하시 경감비용 적용	
	거래내역조회	30원	20원	10원	5원		
	계좌실명조회	50원	30원	15원	8원		
	송금인정보조회	50원	30원	15원	8원		
	수취조회	10원	5원	3원	2원		

➡ 조회수수료가 낮아짐에 따라 오픈뱅킹 참가기관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되어 소비자 혜택이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#### 4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- (기대효과) 오픈뱅킹 참가기관이 다양한 업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업권 간 차별화된 앱 개발 및 대고객 서비스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  - ① 소비자는 은행, 증권사, 상호금융 등 다양한 기관에 자금을 예치하고 이를 가장 사용이 편리한 하나의 앱으로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익이 크게 증진될 예정입니다.
  - ② 정기 예금·적금도 입금 이체가 가능하게 되는 만큼 더욱 편리하게 ‘저축’, ‘추가납입’ 등 새로운 ‘고객 경험(User Experience)’이 가능해집니다.
- (향후계획)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, 내년 상반기 중 카드사,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 등에 대해서도 오픈뱅킹 참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

※ 변경사항 알림(긴급)

- 상호금융 중 농협의 경우 오픈뱅킹 담당부서 직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부서 전체가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바, 농협은 시스템 장애 등에 대비하여 12.29부터 오픈뱅킹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